

1. 환 영 주일예배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후 2층 새가족실에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8월 다음 세대의 달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3. 2026년 여름 독서프로젝트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8월30일까지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 요 저 녀 찬 양 예 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26일)는 수영로 리버스 찬양팀과 함께 하는 찬양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5. 사랑장모임 다음주(30일) 오전예배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6. 기 관 장 회 의 다음주(30일) 오후예배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7. 휴 가 박현인목사, 8월24일(월)~28일(금)
8. 소등 및 전기 예배실이나 각 부서실을 이용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선풍기나 제 품 확 인 에어컨, 소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건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성경 본문

월(24일)	화(25일)	수(26일)	목(27일)	금(28일)	토(29일)
사 33:1-24	사 34:1-17	사 35:1-10	사 36:1-22	사 37:1-20	사 37:21-38

< 교회 오시는 길 >

- 일반버스 - 대연사거리·대연역·대연동제일은행 하차
- 지하철 - 2호선 대연역 2번출구 (120m)
- 주 차 - 교회 옆 주차장 이용
- 부산시 남구 수영로 249번길 8
- Tel 051-628-3709



< 비전선언문 >

대동교회는 성령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 대동교회 3대 사명 >

1. 성령 충만한 교회
2.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3.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고전 3:9)

주 일 예 배

통권 59-35

2026. 8. 23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설립 1967년 2월 5일

11시 / 인도·설교 : 박현인 목사

* 입 레 송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참회의기도	다 같 이
찬 송	15장(하나님의 크신 사랑)
대 표 기 도	김종완 집사
헌 금	예루살렘 찬양대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5:1-12(구.325)
찬 양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전쟁보다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 찬양·결단	주님 말씀하시면
* 축 도	박현인 목사

다음주 기도 : 이경준 집사

주일오후예배	인도·설교 : 김준석 목사	수요저녁예배	인도·설교 : 김준석 목사
찬 양	다 함 계	찬 송	리버스 찬양팀
대 표 기 도	조선미 권사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5:1-11(신.95)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13:31-33(신.22)
설 교	말씀에 의지하여	설 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찬 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 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축 도	김준석 목사	축 도	김준석 목사

다음주 기도 : 박명엽 권사

지나주 말씀요약

건넌 뒤에 돌을 세우십시오(수4:1-9, 23-24)
찬송 :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범람하던 요단강을 은혜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여리고를 향해 전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나온 강 한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가져와 길가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를 쉽게 잊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다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며 은혜의 돌을 세우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지나온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 4:3, 5)

백성들이 어깨에 멘 열두 돌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거센 물을 멈추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표장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짧아서 건강과 문제 해결의 은혜가 지나면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하거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남겨두고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날 여리고 성벽 앞에서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는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묵상질문) : 내가 살아오며 만난 요단강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지역의 열두 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2. 기억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 4:6~7)

길가에 세워진 열두 돌은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을 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려줄 신앙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가 고난 중에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했는지를 보며 믿음을 배웁니다. 가정의 식탁과 삶의 자리에서 내 자람이나 불평 대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로 나누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묵상질문) : 나는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수고와 자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삶의 고비마다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3. 은혜를 기억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크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수 4:23~24)

열두 돌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조상들의 공로나 리더십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와 손이 강하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남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버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셨다"고 고백하며,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묵상질문) : 내 삶의 지나온 발자취와 간증 속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난주간
드려진예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

강동주(장경희) 김영옥(이연순) 김종완(조명지) 김희득 남광재(박다정)
박기학 박채연a 손영숙a 오순미 윤영미(백도윤) 이경선 전성재(정동순)
조용호(김성희) 최삼엽

박현인(이지영) 김동훈(오순미) 김영배b 김종완(조명지) 김준석 김희득
(이경선) 남인우(전선영) 노블클린(김태균) 박종연(정은순) 박채연 박형자
성정희 손영숙a 이정국(박선헌) 조숙연 무명

김예진(에스터,석진,세현,희진) 이혜선(이향기) 무명

김영옥(이연순) 박기학 빅채연a 손영숙a 손정의(윤정원) 오순미 우선자
이경희 전성재(정동순) 조용호(김성희) 최삼엽

이 에 배 시 간

구 분		시 간	장 소	헌금위원	
주 일 오 전 예 배		주일 오전 11시	3층 본당	8월	이이레 이경자b 전순영 하미애
주 일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		
새 벽 기 도 회		월 ~ 토 새벽 5시 30분	3층 본당	9월	이경선 오순미 박미량 정동순
수 요 저 녁 예 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본당		
청 년 회 예 배		-	2층 예배실	10월	강정우 손정의 박희자 박해종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지하 예배실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이 섬기는 분들

교역자		장 로	찬양대		
원 로 목 사	정병찬	원 로 장 로	전섭태 허승구	지 휘	장 호 시무집사
담 임 목 사	박현인	은 퇴 장 로	김상해 박종연	대 장	이경준 시무집사
사 역 목 사	김준석		남인우 한남열		
교 육 전 도 사	최시운, 이지영	장로	전성재 정연수		